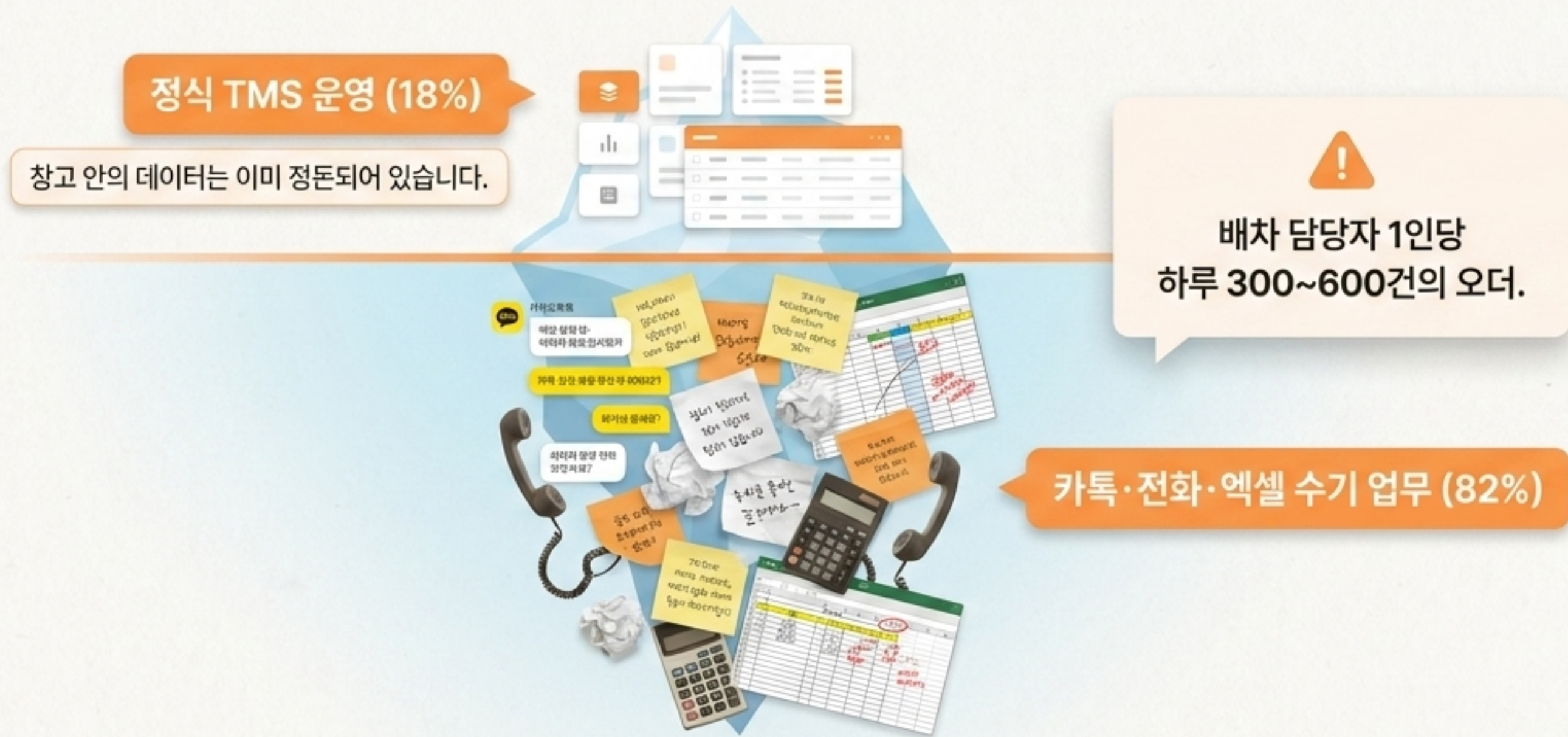


# 작은 규모의 운송사가 내일부터 쓰는 AI

와글 코파일럿: 카톡과 엑셀에 지친 배차 담당자를 구하러 온 '성실한 AI 인턴'

# 진짜 문제는 시스템 '안'이 아니라 시스템 '밖'에 있습니다



거창한 물량이 문제가 아닙니다. 쏟아지는 카카오톡, 끊이지 않는 전화,  
그리고 이를 일일이 손으로 엑셀과 수기장부에 옮겨 적어야 하는 '멀티태스킹'이 진짜 피로의 원인입니다.

# 시스템을 바꾸지 마세요. 시스템 '앞'에 인턴을 한 명 배치하세요.

쏟아지는 비정형 오더



창고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 
정리해서 넣어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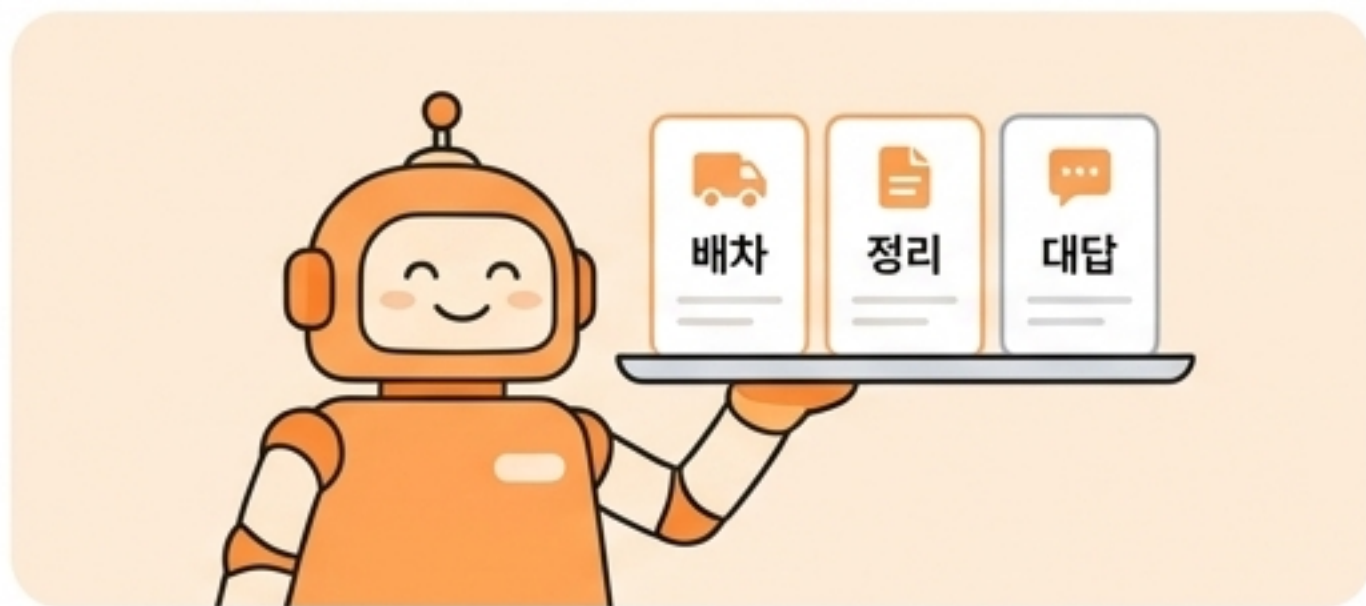
기존 TMS (와글, 윈스 등)



기존 TMS는 그대로 둡니다. 와글 코파일럿은 그 위에 얹히는 얇은 보조 층(Layer)일 뿐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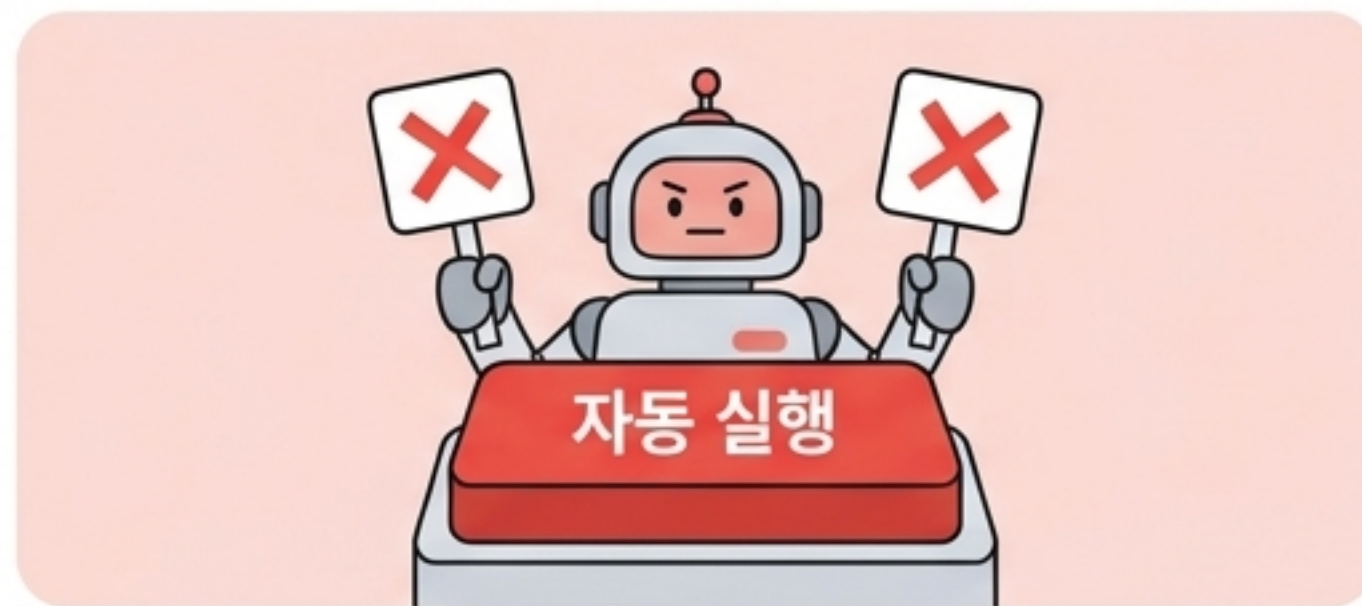
# 통제권은 항상 '사람'에게 있습니다.

## O: AI 인턴이 하는 일 - 제안과 요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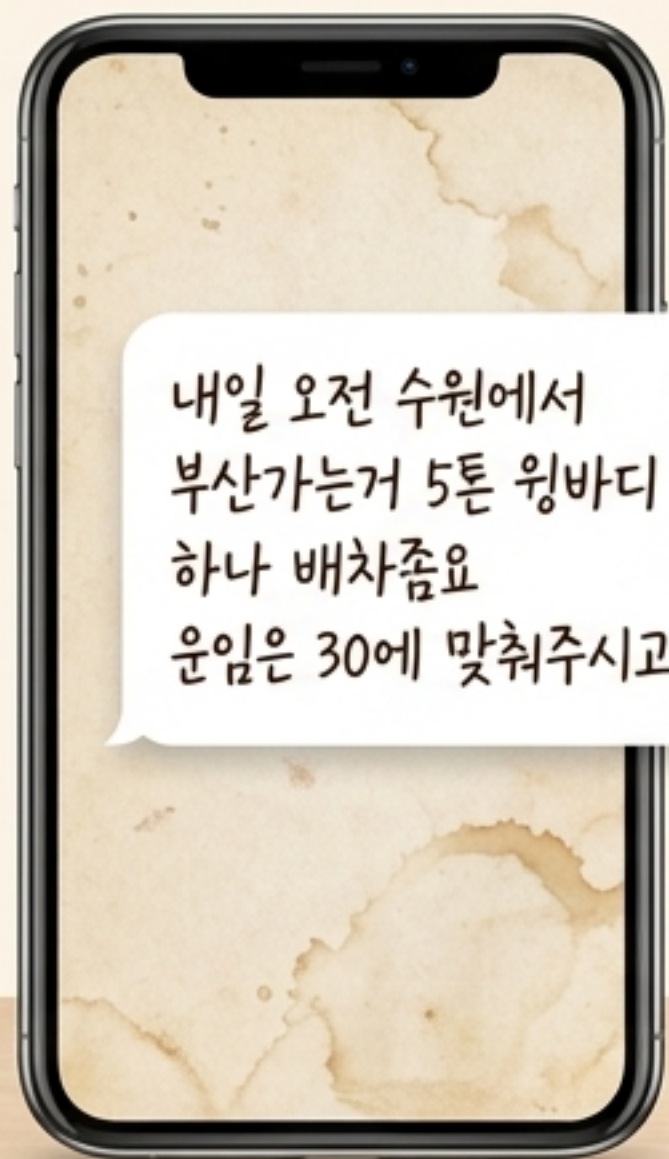
- 1~3순위 배차 후보를 '추천'합니다.
- 복잡한 정산 내역을 한눈에 '요약'합니다.
- 사용자의 질문에 데이터로 '대답'합니다.

## X: 절대 하지 않는 일 - 독단적 결정



- 사람의 클릭(승인) 없이 '자동 배차'하지 않습니다.
- 임의로 '정산 매칭'을 확정짓지 않습니다.
- 기존 업무 방식을 '강제로 변경'하지 않습니다.

# ‘복사하고, 붙여넣고, 수정하고...’ 지긋지긋한 타이핑의 종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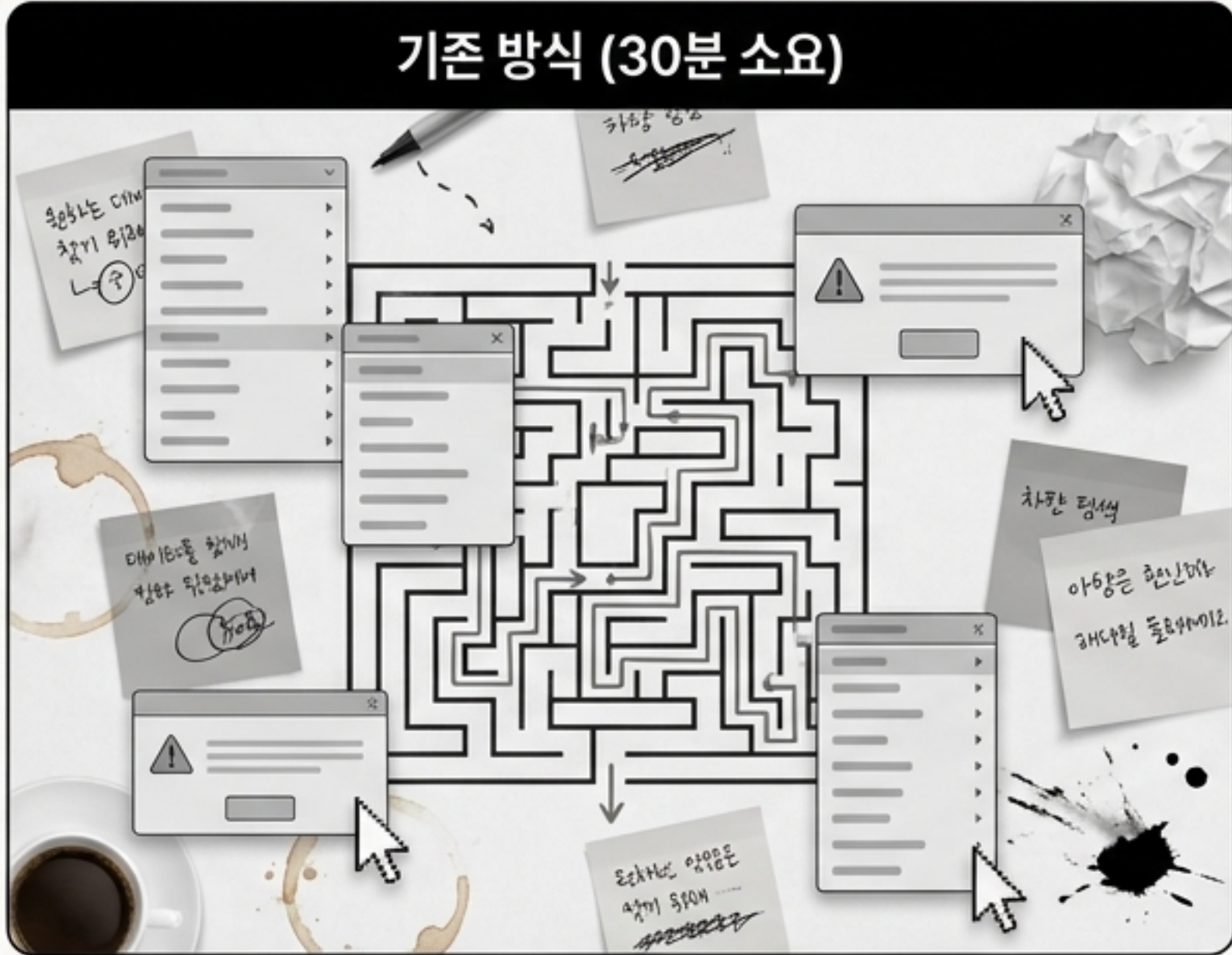
내일 오전 수원에서  
부산가는거 5톤 왕바디  
하나 배차좀요  
운임은 30에 맞춰주시고...

A screenshot of a web browser window titled 'TMS'. It features four input fields with the following text: '출발지: 수원', '도착지: 부산', '차종: 5톤 왕바디', and '운임: 300,000'. Below the fields is a large orange button with the text '확인' (Confirm).

F1 정확도 0.85 이상. 수백 건의 오더 중 수정 없이 넘어가는 건 1초, 수정이 필요한 건 단 30초면 충분합니다.

# 복잡한 메뉴 클릭 대신, 그냥 카톡하듯 물어보세요

## 기존 방식 (30분 소요)



원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 수많은 메뉴를 뒤져야 했던 아침:  
메뉴 열기 > 날짜 설정 > 차량 검색 > 엑셀 다운로드 > 필터링...

## 와글 코파일럿 (5분 소요)

**W** 경기90자9780 어제 뭐 했어?

**AI** **왕스·에이전트** 방금

현재 미정산 4건, 합계 ₩3,820,000이에요. 우리물류 건은 안기 지난 지 5일째예요. 연락 들려드릴까요?

01	우리물류 - 3/18 배차	₩1,240K
02	동양물류 - 3/22 배차	₩980K
03	한솔로지스 - 3/23 배차	₩860K
04	CJ대한통운 - 3/24 배차	₩740K

매일 아침 누르는 5종의 기본 템플릿과 자연어 질의응답으로,  
아침 보고서 작성 시간이 1/6로 줄어듭니다.

# 골치 아픈 정산일, AI가 미리 맞춰드립니다

정산 담당자가 주 2~3회 '이번 주 정산 정리해줘'라고 요청하면,  
코파일럿이 데이터를 3-way 매칭하여 제시합니다.



확신도 92% 이상의 건은 자동 확정 후보로 분리하여, 담당자는 복잡한 예외 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.  
(정산 소요 시간: 2~3시간 → 30분)

# 하루 3시간 30분, 사무실의 풍경이 여유로워집니다



절감된 시간은 화주와의 관계 구축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투자하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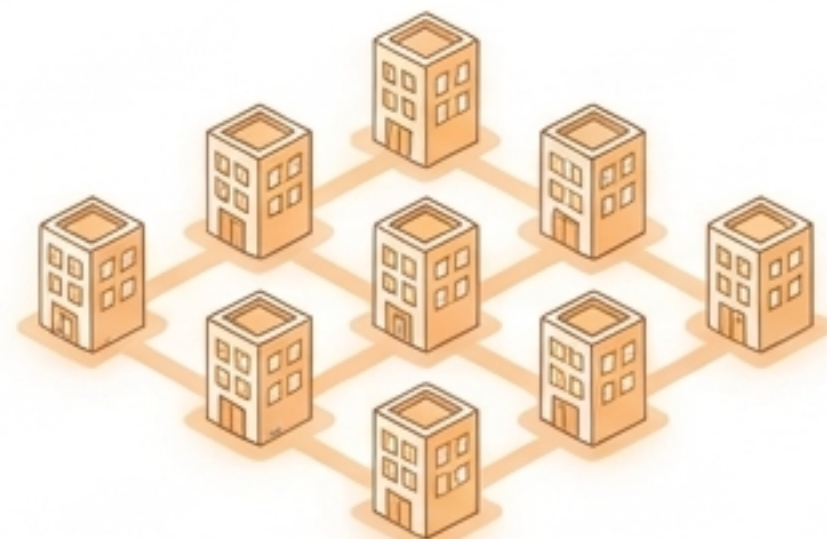
# 콜드콜도, 데이터 이관도 필요 없는 '가장 완벽한 출발선'

## 10년의 도메인 지식



중소 운송사 업무 전 영역(배차·정산·매출)의  
노하우와 배차 최적화 엔진 자체 보유.  
한국어 물류 도메인에 완벽히 특화된 프롬프트.

## 10개사 사용자 기반



이미 윈스와 와글 TMS를 유료로 사용 중인 10개의  
튼튼한 고객사. 영업 장벽 0%,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0%.  
내일 당장 AI를 올려놓을 자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.

대형 IT 기업은 도메인과 고객이 없고, 기존 TMS 업체는 AI 기술이 부족합니다.  
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진 곳은 와글와글뿐입니다.

# 실제 인턴의 커피 값보다 저렴한 24시간 일하는 보조

대체 인건비 대비 약 1/4 수준의 비용 효율

## Starter

**₩100,000 / 월**

(소형 사업장, 차량 ~10대, 사용자 2명)

- ✓ 조회·보고 5개 프리셋
- ✓ 자유 채팅 월 200회
- ✓ 표준 보고서 10종

주력 세그먼트

## Growth

**₩250,000 / 월**

(중견 운송사, 차량 ~30대, 사용자 5명)

- ✓ Starter 전 기능 포함
- ✓ 비정형 정형화 (카톡 파싱)
- ✓ 자유 채팅 월 1,000회
- ✓ Slack/카톡 봇 연동

거창한 비전보다, 내일 아침의 편리함을 약속합니다.

**“우리는 10개 운송사가  
내일 아침부터 실제로 쓸 수 있는  
AI 도구를 만듭니다.  
시장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.”**

다음 단계: 시연 → 파일럿 신청 → 파일럿 유료 전환